

2018년 2월 10일, 한림읍 월림리 월림리노인복지회관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변명림(남, 1932년생, 한림읍 월림리)

제보자2: 문일선(여, 1940년생, 한림읍 월림리)

- 줄거리: 옛날 어느 집안 시어머니가 시집 온 며느리에게 쌀 한 되를 주면서 죽기 전까지 살라고 했다. 며느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집을 나가버리기 일쑤였다.

하루는 어떤 여자가 자청하여 그 집의 며느리로 들어갔다. 시어머니는 똑같이 쌀 한 되를 주면서 죽기 전까지 살라고 했다. 며느리는 그 쌀로 밥을 해 먹으니 남는 것이 없었다. 며느리는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파는 곳에서 돼지고기를 만지면서 얼마냐고 묻고 또 묻고 하다 집으로 돌아와 돼지고기 만졌던 손을 씻어 그 물로 국을 끓여 식구들을 먹였다. 시어머니가 오늘 국이 참 맛있다고 하니 시장 갔다 온 이야기를 했다. 그 이야기를 듣던 시아버지는 장독에 손을 씻었으면 오래 먹었을 거라며 절약정신이 없다고 며느리를 쫓아냈다.

[제보자1] 옛날에 어느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잇는다, 장계를 보냈어. 겐디 시어멍, 어머니,

쌀 혼 되 주면서 메뉴리신디

“이걸로 죽기생전 살아.”

쌀 혼 되로 죽기생전 살아져게. 쌀 혼 되 가지고 죽기생전 살 수가 엇거든, 아이고, 이거 메뉴리 죽기생전 살렌 허믈 나가불고, 나가불고.

“이 할마니는 나가 올로 데령 가 버릇 ?리청 살아사켜.”

저 에염 들어가는다

“나 이 집이 메뉴리 허쿠다.”

“어, 기여 고맙다. 착허다.”

쌀 혼 되 주멍

“쌀 혼 되로 죽기생전에 살라.”

쌀 혼 되 가지고 죽기생전을 살 수는 엇거든, 밥은 혼 때 행 먹어보난, 메기고 시장통에 덩겨 보니간은 돛궤기 푸는 디가 있거든.

“요건 얼메우파? 요건 얼메우파?”

허멍, 짚으멍 헤가는데 손에 돛지름 불르고, 돛지름을 흐쌀 얹어단, 그걸 씻어 올려 국을 끓럼거든, 식구마다 다 불렁 맥연.

[제보자2] 집이 오랑 손 씻인 물에 국 끓연 맥연.

[제보자1] “오늘은 어떠한 국이 영 맛이 좋니?”

“건 뭘 말이파? 어머니 쌀 혼 되 주멍 죽기생전에 살렌 허난, 쌀 혼 되는 밥 혼 끼 행 먹어부난 메기고, 다시 뭇을 행 먹어야 뿔 건디 먹어볼 건 엇고, 시장에 덩기당 이만 저만 행 돛지름 얻어단 국을 끓여 혼 사발씩 안넷우다.”

허난, 시아방이 앓앗단 허는 말이

“야, 이 이년도 즈냥 못헐 년이라고 나가불라. 아, 그거 장독에나 물독에 씻어났이믄 오래오래 먹을 건디, 혼꺼번에 먹언, 이년도 즈냥 못헐 년이라고 나가라.”

[제보자2] 장더레 씻어났이믄 거 일년 내내 먹을 걸. (웃음)

- 핵심어: 쌀(쌀), 혼 되(한 되), 돛지름(돼지기름), 즈냥(절약), 시장, 장독, 국, 시아방(시아버지), 시어멍(시어머니), 메누리(며느리), 아들, 장계(장가)